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장애 극복 인간승리 3제 /

눈물·투혼·감동의 레이스... 박수 또 박수

■ 남편과 폴코스 완주 시각장애인 김미순씨

■ 양 팔 없는 김영갑씨 폴코스 4위 골인

■ 지적장애인 한성주군 하프 4년 연속 완주

42.195km는 너무 짧았다. 남편 김효근(49·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씨의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김미순(여·49·시각장애 2급)씨.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꼭 잡은 남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비장애인인 김미순은 이날 마라톤대회에서 4시간 18분의 기록으로 폴코스 여자부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김씨는 8년 전 희귀 난치성 질병인 '베체트 병'(Behcet's disease·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으면서 양쪽 시력을 잃게 됐다.

실명의 아픈 상처가 마라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03년 인천지역 한 마라톤 동호회에서 회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곧장 신청서를 냈다. 가족들과 주변에선 만류했다. 그러나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김씨의 열정은 남편의 취미도 바뀌었다.

'부부 마라토너'로 함께 댄 지 5년째인 김씨 부부. 마라톤은 이제



김미순·김효근씨 부부가 양 손목에 '사랑의 끈'을 묶은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코스를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들의 생활이 되었다. 그동안 100km 울트라마라톤 2회, 폴코스 17회, 하프 30회 등 모두 49회를 뛰었다. 김씨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마라톤 대회 참가일은 곧 '가족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김영갑(37·경북 구미시)씨는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양팔이 없는 지적장애인(2급)인 그는 이날 대회에서 2시간41분의 기록으로 폴코스 남자부 4위를 차지, 비장애인인 김미순과 겨루는 실력을 뽐냈다.

그의 레이스를 지켜본 참가선수와 응원객 등 1천500명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치러진 하프 마라톤대회에서는 1시간13분15초의 기록으로 하프코스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김씨는 2001년 1월 회사 근무 중 갑전사고로 양팔을 잃었다. 이후 마라톤동호회에 가입한 김씨는 일주일에 50km 이상 달리며 '희망의 씨'를 키워갔다.

마라톤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씨는 지난 9년 동안 폴코스 100회 등 아마추어 마라토너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최고기



'양팔 없는 마라토너'로 유명한 김영갑씨가 경기 도중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록은 2시간34분.

그의 다음 목표는 2시간20분대 진입이다. 김씨는 "나에게는 팔이 하나도 없이 장애가 아니다. 양쪽 팔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마라톤 경기장에서 내 팔이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마라톤은 내 인생의 활력소"라고 의지를 다졌다.

"달리기가 너무 좋아요. 하프코스(21.09km) 완주를 목표로 삼았는데, 1시간50분 안에 끝까지 하게 돼 기쁨이 두 배예요."

지적장애 3급인 한성주(19·조선대 1년 체육학과)군도 이날 마라톤 대회에서 힘찬 질주를 선보였다. 그가 이날 하프코스 남자부에서 작성한 공식기록은 1시간46분. 지난해 1시간56분보다 10분 단축한 것이다. 3·1절 마라톤에 네 번째 참가한 한군은 대회 참가 때마다 코스를 늘려가며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군은 축구와 빙상 선수로도 눈부시게 활약해왔다. 지난해 12일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지적장애인 학생부 쇼트트랙 500m·1천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지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군은 4년 전 지적장애인복지회 회원들과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마라톤에 입문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엔 10km, 지



하프코스(21.09km)에 참가한 한성주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라인을 통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난해와 올해는 하프코스에도 도전하는 등 체력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연습량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완주해 다행이다. 아버지가 응원해 준 덕분에 '땀 땀 힘들지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마라톤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741) 김장두



해남 터널 사고 1명 숨져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15분께 해남군 구시터널에서 76바33XX호(운전기사 이모씨·58) 관광버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아 승객 오모(여·52) 씨가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추가 사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운전기사씨의 진술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배고픔에 과일·김치 훔친 고시원생

○광주북부경찰은 1일 고시원 공동취사장에서 과일과 김치 등을 훔친 김모(27·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5시에 자신이 한 때 생활했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 공동취사장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고시원생 이모(23)씨 등이 놔둔 김치와 과일 등 음식물을 몰래 꺼내 먹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경찰에서 "생활비가 떨어져 사흘간 식사를 못했다. 하도 배가 고파야 음식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 선박 침몰 사고는 '人災'

선원 5명 실종... 낙장신고·조난발신기 먹통

선원 11명과 기계설비부품 735t을 싣고 신안군 해상을 항해중이던 (주)한진 소속 선박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침몰해 선원 5명이 실종됐다.

해경과 해군은 침몰한 선박과 실종 선원에 대해 사색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사고 경위=목포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신안군 가거도 서방 54km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석진호(포항선적·3천445t)에서 선원 6명을 구조했으며, 이를 뒤에서 밀어주는 압항선 정진호(포항선적·341t)는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정진호에는 선장 유모(54·부산시 진구)씨 등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실종됐다.

경찰조사결과 지난달 25일 새벽 4시30분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악화되자 정진호에 타고 있던 송운호(52·부산시 수영구·갑판장)씨

등 6명은 석진호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배를 연결하던 철제 핀이 파손·분리되면서 유 선장 등 5명이 정진호와 함께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 "낙장 신고·조난발신기 '먹통' 등 인재"=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실종자 가족들은 선사 측의 낙장신고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유 선장의 부인 이모(49)씨는 "선사와 통신이 두절된 지 이틀이 지난 뒤야 경찰에 신고한 이유가 뭐냐"며 "출항 전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찰은 1일 선사관계자를 불러 낙장신고 경위와 조난신호음 장비(EPIRB·선박)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여 수난구호법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녀 성·본 변경 10명 중 8명 끝 허가

광주지법 지난해 449건

지난 2006년 재혼한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진모(8)양의 성(姓)·본(本)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앞둔 딸이 새 아버지의 성과 다르다는 점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생부의 양육 비자금 여부 및 교류 정도 등을 따져 진양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자녀의 성·본 변경'을 인정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가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에서 449명

이 성·본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신청건수는 549건에 달한다. 법원은 이 가운데 449건(81.7%)을 허가했으며, 26건(4.7%)은 기각했다. 변경 신청 사례 10명 중 8명 이상은 성과 본이 바뀌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성·본 변경이 유는 전체 신청건수 10건 중 8건 이상이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고, 어머니 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은 1~2건 정도"라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2008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이벤트1: 수석합격 기념

8급공무원 한직을 선택하면 30만원 상당

이벤트2: 수석합격 기념

#8급공무원 전직할 2개월연봉 30만원

이벤트3: 수석합격 기념

출입반(이론반)/문제풀이반, 단과반 4개월

개강: 3월 2일 (이론반/문제풀이반)

동부고시학원 동부관철시 버포위

www.233-0609

스피치 리더십 지도자 수강생

교육내용

1. 의사소통의 중요성

2. 청취의 중요성

3. 발표의 중요성

4. 협상의 중요성

5. 갈등의 중요성

6. 리더십의 중요성

7. 팀워크의 중요성

8. 문제해결의 중요성

9. 의사결정의 중요성

10. 리더십의 중요성

11. 리더십의 중요성

12. 리더십의 중요성

13. 리더십의 중요성

14. 리더십의 중요성

15. 리더십의 중요성

16. 리더십의 중요성

17. 리더십의 중요성

18. 리더십의 중요성

19. 리더십의 중요성

20. 리더십의 중요성

21. 리더십의 중요성

22. 리더십의 중요성

23. 리더십의 중요성

24. 리더십의 중요성

25. 리더십의 중요성

26. 리더십의 중요성

27. 리더십의 중요성

28. 리더십의 중요성

29. 리더십의 중요성

30. 리더십의 중요성

31. 리더십의 중요성

32. 리더십의 중요성

33. 리더십의 중요성

34. 리더십의 중요성

35. 리더십의 중요성

36. 리더십의 중요성

37. 리더십의 중요성

38. 리더십의 중요성

39. 리더십의 중요성

40. 리더십의 중요성

41. 리더십의 중요성

42. 리더십의 중요성

43. 리더십의 중요성

44. 리더십의 중요성

45. 리더십의 중요성

46. 리더십의 중요성

47. 리더십의 중요성

48. 리더십의 중요성

49. 리더십의 중요성

50. 리더십의 중요성

51. 리더십의 중요성

52. 리더십의 중요성

53. 리더십의 중요성

54. 리더십의 중요성

55. 리더십의 중요성

56. 리더십의 중요성

57. 리더십의 중요성

58. 리더십의 중요성

59. 리더십의 중요성

60. 리더십의 중요성

61. 리더십의 중요성

62. 리더십의 중요성

63. 리더십의 중요성

64. 리더십의 중요성

65. 리더십의 중요성

66. 리더십의 중요성

67. 리더십의 중요성

68. 리더십의 중요성

69. 리더십의 중요성

70. 리더십의 중요성

71. 리더십의 중요성

72. 리더십의 중요성

73. 리더십의 중요성

74. 리더십의 중요성

75. 리더십의 중요성

76. 리더십의 중요성

77. 리더십의 중요성

78. 리더십의 중요성

79. 리더십의 중요성

80. 리더십의 중요성

81. 리더십의 중요성

82. 리더십의 중요성

83. 리더십의 중요성

84. 리더십의 중요성

85. 리더십의 중요성

86. 리더십의 중요성

87. 리더십의 중요성

88. 리더십의 중요성

89. 리더십의 중요성

90. 리더십의 중요성

91. 리더십의 중요성

92. 리더십의 중요성

93. 리더십의 중요성

94. 리더십의 중요성

95. 리더십의 중요성

96. 리더십의 중요성

97. 리더십의 중요성

98. 리더십의 중요성

99. 리더십의 중요성

100. 리더십의 중요성

101. 리더십의 중요성

102. 리더십의 중요성

103. 리더십의 중요성

104. 리더십의 중요성

105. 리더십의 중요성

106. 리더십의 중요성

107. 리더십의 중요성

108. 리더십의 중요성

109. 리더십의 중요성

110. 리더십의 중요성

111. 리더십의 중요성

112. 리더십의 중요성

113. 리더십의 중요성

114. 리더십의 중요성

115. 리더십의 중요성

116. 리더십의 중요성

117. 리더십의 중요성

118. 리더십의 중요성

119. 리더십의 중요성

120. 리더십의 중요성

121. 리더십의 중요성

122. 리더십의 중요성

123. 리더십의 중요성

124. 리더십의 중요성

125. 리더십의 중요성

126. 리더십의 중요성

127. 리더십의 중요성

128. 리더십의 중요성

129. 리더십의 중요성

130. 리더십의 중요성

131. 리더십의 중요성

132. 리더십의 중요성

133. 리더십의 중요성

134. 리더십의 중요성

135. 리더십의 중요성

136. 리더십의 중요성

137. 리더십의 중요성

138. 리더십의 중요성

139. 리더십의 중요성

140. 리더십의 중요성

141. 리더십의 중요성

142. 리더십의 중요성

143. 리더십의 중요성

144. 리더십의 중요성

145. 리더십의 중요성

146. 리더십의 중요성

147. 리더십의 중요성

148. 리더십의 중요성

149. 리더십의 중요성

150. 리더십의 중요성

151. 리더십의 중요성

152. 리더십의 중요성

153. 리더십의 중요성

154. 리더십의 중요성

155. 리더십의 중요성

156. 리더십의 중요성

157. 리더십의 중요성

158. 리더십의 중요성

159. 리더십의 중요성

160. 리더십의 중요성

161. 리더십의 중요성

162. 리더십의 중요성

163. 리더십의 중요성

164. 리더십의 중요성

165. 리더십의 중요성

166. 리더십의 중요성

167. 리더십의 중요성

168. 리더십의 중요성

169. 리더십의 중요성

170. 리더십의 중요성

171. 리더십의 중요성

172. 리더십의 중요성

173. 리더십의 중요성

174. 리더십의 중요성

175. 리더십의 중요성

176. 리더십의 중요성

177. 리더십의 중요성

178. 리더십의 중요성

179. 리더십의 중요성

180. 리더십의 중요성

181. 리더십의 중요성

182. 리더십의 중요성

183. 리더십의 중요성

184. 리더십의 중요성

185. 리더십의 중요성

186. 리더십의 중요성

187. 리더십의 중요성

188. 리더십의 중요성

189. 리더십의 중요성

190. 리더십의 중요성

191. 리더십의 중요성

192. 리더십의 중요성

193. 리더십의 중요성

194. 리더십의 중요성

195. 리더십의 중요성

196. 리더십의 중요성

197. 리더십의 중요성

198. 리더십의 중요성

199. 리더십의 중요성

200. 리더십의 중요성

201. 리더십의 중요성

202. 리더십의 중요성

203. 리더십의 중요성

204. 리더십의 중요성

205. 리더십의 중요성

206. 리더십의 중요성

207. 리더십의 중요성

208. 리더십의 중요성

209. 리더십의 중요성

210. 리더십의 중요성

211. 리더십의 중요성

212. 리더십의 중요성

213. 리더십의 중요성

214. 리더십의 중요성

215. 리더십의 중요성

216. 리더십의 중요성

217. 리더십의 중요성

218. 리더십의 중요성

219. 리더십의 중요성

220. 리더십의 중요성

221. 리더십의 중요성

222. 리더십의 중요성

223. 리더십의 중요성

224. 리더십의 중요성

225. 리더십의 중요성

226. 리더십의 중요성

227. 리더십의 중요성

228. 리더십의 중요성

229. 리더십의 중요성

230. 리더십의 중요성

231. 리더십의 중요성

232. 리더십의 중요성

233. 리더십의 중요성

234. 리더십의 중요성

235. 리더십의 중요성

236. 리더십의 중요성

237. 리더십의 중요성

238. 리더십의 중요성

239. 리더십의 중요성

240. 리더십의 중요성

241. 리더십의 중요성

242. 리더십의 중요성

243. 리더십의 중요성

244. 리더십의 중요성

245. 리더십의 중요성

246. 리더십의 중요성

247. 리더십의 중요성

248. 리더십의 중요성

249. 리더십의 중요성

250. 리더십의 중요성

251. 리더십의 중요성

252. 리더십의 중요성

253. 리더십의 중요성

254. 리더십의 중요성

255. 리더십의 중요성

256. 리더십의 중요성

257. 리더십의 중요성

258. 리더십의 중요성

259. 리더십의 중요성

260. 리더십의 중요성

261. 리더십의 중요성

262. 리더십의 중요성

263. 리더십의 중요성

264. 리더십의 중요성

265. 리더십의 중요성

266. 리더십의 중요성

267. 리더십의 중요성

268. 리더십의 중요성

269. 리더십의 중요성

270. 리더십의 중요성

271. 리더십의 중요성

272. 리더십의 중요성

273. 리더십의 중요성

274. 리더십의 중요성

275. 리더십의 중요성

276. 리더십의 중요성

277. 리더십의 중요성

278. 리더십의 중요성

279. 리더십의 중요성

280. 리더십의 중요성

281. 리더십의 중요성

282. 리더십의 중요성

283. 리더십의 중요성

284. 리더십의 중요성

285. 리더십의 중요성

286. 리더십의 중요성

287. 리더십의 중요성

288. 리더십의 중요성

289. 리더십의 중요성

290. 리더십의 중요성

291. 리더십의 중요성

292. 리더십의 중요성

293. 리더십의 중요성

294. 리더십의 중요성

295. 리더십의 중요성

296. 리더십의 중요성

297. 리더십의 중요성

298. 리더십의 중요성

299. 리더십의 중요성

300. 리더십의 중요성

301. 리더십의 중요성

302. 리더십의 중요성

303. 리더십의 중요성

304. 리더십의 중요성

305. 리더십의 중요성

306. 리더십의 중요성

307. 리더십의 중요성

308. 리더십의 중요성

309. 리더십의 중요성

310. 리더십의 중요성

311. 리더십의 중요성

312. 리더십의 중요성

313. 리더십의 중요성

314. 리더십의 중요성

315. 리더십의 중요성

316. 리더십의 중요성

317. 리더십의 중요성

318. 리더십의 중요성

319. 리더십의 중요성

320. 리더십의 중요성

321. 리더십의 중요성

322. 리더십의 중요성

323. 리더십의 중요성

324. 리더십의 중요성

325. 리더십의 중요성

326. 리더십의 중요성

327. 리더십의 중요성

328. 리더십의 중요성

329. 리더십의 중요성

330. 리더십의 중요성

331. 리더십의 중요성

332. 리더십의 중요성

333. 리더십의 중요성

334. 리더십의 중요성

335. 리더십의 중요성

336. 리더십의 중요성

337. 리더십의 중요성

338. 리더십의 중요성

339. 리더십의 중요성

340. 리더십의 중요성

341. 리더십의 중요성

342. 리더십의 중요성

343. 리더십의 중요성

344. 리더십의 중요성

345. 리더십의 중요성

346. 리더십의 중요성

347. 리더십의 중요성

348. 리더십의 중요성

349. 리더십의 중요성

350. 리더십의 중요성

351. 리더십의 중요성

352. 리더십의 중요성

353. 리더십의 중요성

354. 리더십의 중요성

355. 리더십의 중요성

356. 리더십의 중요성

357. 리더십의 중요성

358. 리더십의 중요성

359. 리더십의 중요성

360. 리더십의 중요성

361. 리더십의 중요성

362. 리더십의 중요성

363. 리더십의 중요성

364. 리더십의 중요성

365. 리더십의 중요성

366. 리더십의 중요성

367. 리더십의 중요성

368. 리더십의 중요성

369. 리더십의 중요성

370. 리더십의 중요성

371. 리더십의 중요성

372. 리더십의 중요성

373. 리더십의 중요성

374. 리더십의 중요성

375. 리더십의 중요성

376. 리더십의 중요성

377. 리더십의 중요성

378. 리더십의 중요성

379. 리더십의 중요성

380. 리더십의 중요성

381. 리더십의 중요성

382. 리더십의 중요성

383. 리더십의 중요성

384. 리더십의 중요성

385. 리더십의 중요성

386. 리더십의 중요성

387. 리더십의 중요성

388. 리더십의 중요성

389. 리더십의 중요성

390. 리더십의 중요성

391. 리더십의 중요성

392. 리더십의 중요성

393. 리더십의 중요성

394. 리더십의 중요성

395. 리더십의 중요성

396. 리더십의 중요성

397. 리더십의 중요성

398. 리더십의 중요성

399. 리더십의 중요성

400. 리더십의 중요성

401. 리더십의 중요성

402. 리더십의 중요성

403. 리더십의 중요성

404. 리더십의 중요성

405. 리더십의 중요성

406. 리더십의 중요성

407. 리더십의 중요성

408. 리더십의 중요성

409. 리더십의 중요성

410. 리더십의 중요성

411. 리더십의 중요성

412. 리더십의 중요성

413. 리더십의 중요성

414. 리더십의 중요성

415. 리더십의 중요성

416. 리더십의 중요성

417. 리더십의 중요성

418. 리더십의 중요성

419. 리더십의 중요성

420. 리더십의 중요성

421. 리더십의 중요성

422. 리더십의 중요성

423. 리더십의 중요성

424. 리더십의 중요성

425. 리더십의 중요성

426. 리더십의 중요성

427. 리더십의 중요성

428. 리더십의 중요성

429. 리더십의 중요성

430. 리더십의 중요성

431. 리더십의 중요성

432. 리더십의 중요성

433. 리더십의 중요성

434. 리더십의 중요성

435. 리더십의 중요성

436. 리더십의 중요성

437. 리더십의 중요성

438. 리더십의 중요성

439. 리더십의 중요성

440. 리더십의 중요성

441. 리더십의 중요성

442. 리더십의 중요성

443. 리더십의 중요성

444. 리더십의 중요성

445. 리더십의 중요성

446. 리더십의 중요성

447. 리더십의 중요성

448. 리더십의 중요성

449. 리더십의 중요성

450. 리더십의 중요성

451. 리더십의 중요성

452. 리더십의 중요성

453. 리더십의 중요성

454. 리더십의 중요성

455. 리더십의 중요성

456. 리더십의 중요성

457. 리더십의 중요성

458. 리더십의 중요성

459. 리더십의 중요성

460. 리더십의 중요성</